물귀신만 이기자!

(요6:14~21)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물귀신만 이기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목표를 '물귀신만 이기자!'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물귀신만 이기면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귀신 이기는 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물귀신이라면 뭐 구태여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그 빠져 죽은 자리에 남아서 귀신이 되는 게

바로 물귀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끌어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물귀신이 비유적으로 삶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그냥 자기 혼자 물에 빠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경우를 물귀신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물귀신을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규명하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누구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할 때에, 바벨론 왕을 사탄의 표상으로 생각해서 뭐라 하느냐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떨어진 자입니다, 빠진 자입니다, 궁지에 몰린 자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궁지에 몰려있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늘로부터 끌어당겨서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빠뜨리는 물귀신 작전의 성공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작전의 첫 번째 단계로 이루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견고한 디딤판으로 보이도록 우리 눈을 속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 땅이 첫 번째로 견고한 디딤판으로 우리 눈이 그걸 보게끔 만든 다음, 그게 디딤판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디딤판 위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려 하도록 합니다.
그 디딤판 위에서 성공된 삶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는데, 그 몸부림 속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하여간 모든 종류의 세상을 향한 근심과 염려는 다 이미 물귀신 작전에 말려 들어서, 세상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바다에요.
근데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 눈에 견고한 디딤판으로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바다에 빠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빠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빠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빠지게 하고, 또 반대로 세상일을 성공하고 심취하게 하면서 성공에 취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마음이 하늘에 있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빠뜨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의 뒤풀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오천 명 대략 뭐 15,000에서 20,000명의 어마어마한 군중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의 나머지를 거둔 대사건입니다.
이 센세이션은, 이 기적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 20,000명 군중의 마음속에는, 이토록 경이로운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이로움과 마음에 갖게 된 각자가 받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강한 인상은 평생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승리에 가장~ 들뜬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20,000명 군중이 들뜬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쫓아다니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자!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가장~ 들뜬 자, 제자들보다 더 들뜬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제일 기뻐할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물귀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탄이 제일 기뻐한 겁니다.
'맞아 기뻐해라, 환호해라, 다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라, 억지로 너희의 임금으로 삼아라! 왜? 예수님이 임금 되면 너희가 먹고 살 걱정이 싹 없어진다.'
20,000의 군중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태평성세를 보여줍니다, 보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가 임금이면 된다.

요즘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박 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화두가 된 단어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잘 사는 나라,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박 근혜 씨의 목표에요, 경제민주화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라, 서민들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루자.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즐거워 할 일은, 이 땅에 견고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 바로 예수가 아니냐? 예수를 임금 삼아서 너희가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예수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오병이어로 2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오죽 하겠느냐, 들판에 한 들판에 있는 곡식 한 마당만 추수를 해도, 갈릴리 한쪽 바다에서 한배 가득하게 잡은 고기 하나만 해도, 이 온 백성이 먹고도 남지 않겠느냐?
아하!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사탄도 좋아합니다.
그 기적을 수혜 받은 당사자와 기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견고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게끔 하는 것, 사탄이 물귀신 작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게 될 때, 바로 사탄의 물귀신 작

전에 말려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 살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 백 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껏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땅 위에서의 역사를 기뻐하자, '이 땅에서 너희들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을 향해, 형통을 향해, 안정된 기틀 구축을 향해 점점 더 확고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믿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빠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심취되어 있으니까.
땅으로 염려하는 것, 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땅으로 기뻐하는 것,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뻐하는 것, 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물귀신 된 사탄의 최종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 안정된 틀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안정된 기반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 군중들보다 훨씬 더 들떠있는, 들뜸의 지수가 두 배 이상일 수 있는 제자들을 배타고 저쪽 바다 건너편 서쪽으로 보냅니다.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중에, 마태나 마가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풍랑 얘기는 없지만 '십 여리 쯤'이라 그래요. 십여 리면 4km 남짓합니다. 4~5Km 정도.
그러니까 4~5km 밖에 못 갔다는 것은, 마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도시간이 새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풍랑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이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땅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자, 땅이라는 바다 위를 걷는 자, 이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땅에 빠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빠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다 위를, 땅이라는 바다를 걷는 자들.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그러면,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훌륭한 부부, 멋진 부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냐?
결혼을 하는 것의 목적은, 남편은 아내에 빠지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계속해서 버리고, 버린 사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내가 좋아서 내가 남편이 좋아서 맺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식을 주신 것은, 자식을 성공적으로 잘 키우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 빠지지 말라고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식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에 자식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식을 받아들이면 자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식에 빠지지 않고 자식을 내몰고, 내 마음 바깥으로 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아내로 기뻐하기 위해 장가가고, 남편으로 기뻐하기 위해 시집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아내를 상대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중에 아내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자식에게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 자식과 부모 지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형통을 향해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빠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 세상일로 염려하고, 이 세상일로 근심하고 있고, 이 세상일로 기뻐하고, 이 세상일로 형통하겠다고 의욕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 들어서 세상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빠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주님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
뭐 안 철수 씨가 억지로 대통령 출마를 수락하지 않습니까?
문 재인 씨도 원래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마음먹고 달려든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권면을 해서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다 뿌리치시고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이상한 거예요.
좀 더 뒤풀이가 좀 뭐 그럴듯하게 뒤따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의 현장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 승리의, 이 성취의 순간에 이어서 뭔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 보고는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당신은 혼자 산에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주님은 기도 시간에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없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었겠지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셨기에, 진정한 인간인 면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마는, 진

정한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순간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과 제자들과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 빠뜨리려는 물귀신 작전에 총동원 되는 것을 보시고, 다 뿌리치시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이 유혹을 뿌리치시며 기도하시고, 마음 안에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승리와 모든 성취를 다~ 망각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채우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영은 '루아크'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그러는데 이 루아크와 프뉴마는, 영이라는 단어이기 이전에 바람입니다, 바람.
기도하시면서, 영이신 바람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속에 채우십니다.
자! 이제 마음에 신의 바람이 가득차신 상태로, 바다에 발을 들여 놓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가득 찬 공이 바닷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신의 바람으로 가득차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걷는 이 모습 그대로, 너희는 이 땅이라는 바다를 걸어야 된다, 그것이 하늘의 백성들이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승리의 순간과 모든 염려의 순간을 다~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이 땅 이라는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신의 바람으로 마음을 채워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린 죄라는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라는 산을 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 자식에 대해 부모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럴 때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마에 가시면류관,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온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나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망에 가시면류관 쓰고 죽었고, 손에 못 박혀 손댈 수 없이 죽었다!
이러한 십자가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 세상에서 빠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가라앉았던 내 마음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동안에, 신의 바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묶여 있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세상에 빠져있던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신의 바람을 주겠다.'
그래서 마음이 바람으로 가득 차서, 신의 바람으로 찬 상태에서, 이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동안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다시 신의 바람이 빠져서 세상에 잡아 당겨지고, 끌어당겨지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일로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다 물리치고 산에 들어가서 십자가 붙잡고 빠져 나오며 기도를 드리고, 다시 신의 바람으로 차서 다시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차 있는 동안에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귀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이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 빠진 내 마음이 물 위로 뜨게 하시며, 물 위로 뜬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셔서, 세상에 가라앉지 않고, 물귀신인 사탄의 손길을 뿌리치며 능히 이

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